

광주문화재단, 인권경영 노·사 공동 선포식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김윤기)은 지난 18일 재단 다목적실에서 노사가 함께 하는 인권경영선포식을 개최했다. (사진) 이번 선포식은 인권경영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성장하고 인권중점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포식에서는 '광주문화재단 인권경영을 위한 노사 공동 선언문'을 작성하고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인권에 대한 국내의 기준 및 규범 준수, 고용에 있어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다양성을 존중, 노동조합 활동 보장과 노사상생 노력, 국내외 환경법규 준수 등을 다짐했다. 아울러 예술을 즐길 권리 및 표현의 자유 보장, 공정하고 정당한 업무 수행 등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실천을 다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전남도체육회 '코로나19 극복, 생명나눔·헌혈행사'



전남도체육회(회장 김재우)는 지난 20일 전남도체육회관과 순천팔마체육관 등 2곳에서 도체육회 임직원을 비롯해 시·군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 임직원 및 전문·생활체육지도자, 우수선수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코로나19 극복, 생명나눔·사랑의 헌혈행사'를 열었다. 도체육회는 이날 교부받은 헌혈증을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원장 김영길)에 기증하는 기증식도 열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코로나19 성금 전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종훈)은 최근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임직원 성금 305만원을 전달했다. 앞서 사학연금은 후원금 300만원을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사학연금 제공>

보성 석간어촌계 해양쓰레기 수거 '바다가꿈'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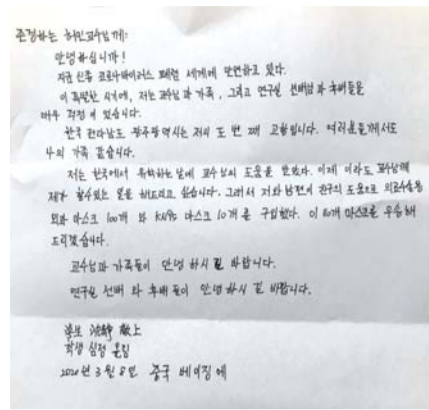


보성군 회천면 석간어촌계 회원 30여명이 최근 해양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주변 해안에서 바다환경을 살리기 위해 바다가꿈 행사를 열었다. 이들은 갈대밭, 항포구, 해변에서 페스티로폼, 페어구 등 쓰레기 3t을 수거해 회천면 쓰레기 처리장으로 보냈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제공>

“코로나19 함께 극복... 유학시절 받은 도움 감사합니다”

중 유학생, 전남대 은사·선후배에 마스크·편지 보내와 전남대, “중국에서도 힘들텐데 정성 보내줘 고마울 뿐”

코로나19가 전세계에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전남대학교 출신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 지도교수와 연구실 선후배의 안전을 걱정하는 편지와 마스크를 보내와 눈길을 끈다.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최근 중국인 유학생 대학원 재차진 심정(沈靜)씨로부터 소포를 받았다. 소포에는 정성을 담아 쓴 한국어 안부 편지와 마스크 한 꾸러미가 동봉돼 있었다. 마스크는 의류수출용 외과마스크 100개와 KN95마스크 10개 등 총 110개가 들어 있었다. 편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이 세계에 만연하고 있다. 이 특별한 시기에 교수님과 가족, 연구실 선배들과 후배들을 매우 걱정하고 있다”는 말로 시작했다. 심정씨는 이어 “한국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시는 저의 두 번째 고향이다. 여러분들도 나의 가족과 같다”며 “한국에서 유학하는 동안 교수님의 도움을 받았다. 이제라도



교수님께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드리고 싶다”고 썼다. 또 편지에는 “남편과 친구의 도움으로 마스크를 구입했다. 110개 마스크를 우송해 드립니다. 교수님과 가족, 연구실 선배와 후배들이 안녕하시길 바랍니다”고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관계자들이 중국 유학생 심정씨가 보낸 한국어 편지(왼쪽)와 마스크를 들어 보이고 있다. 심정씨는 8일 베이징에서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앞으로 편지와 마스크 110개를 보냈다.

쓰여 있었다. 편지는 지난 8일자로 작성돼 있었으나, 국제운송이 지연되며 지난 19일야에 전남대에 도착했다. 허민 교수는 “우리 대학의 많은 교수님

들도 유사한 경험을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중국 사정도 어려울텐데 전남대 출신으로서 연구실 선후배들을 챙기려는 제자의 정성이 기특하고 고마울 뿐”이라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고객 재산을 내 재산처럼”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신입직원에게 나주경찰서 감사장
“고객의 재산을 내 부모·형제 재산처럼 소중히 다루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나주신협 김하영(56·왼쪽에서 네번째) 팀장이 최근 나주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사진) 김 팀장은 지난 17일 신협 조합원 A(75)씨가 정기예금 등 5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송금하려는 행동에서 보이스피싱을 직감하고 신속히 대처, 고객의 피해를 막았다. 김 팀장은 5000만원의 현



금을 송금하려는 A씨에게 어디에 쓸 것인지 물었고, A씨가 자식에게 줄 것이라며 당황해하자 시간을 끌며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김 팀장의 제치로 큰 돈을 지킬 수 있었던 A씨는 거듭 감사함을 표했다. 김상철 나주경찰서장은 “나주신협 직원의 신속한 대처로 시민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며 김 팀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1세대 한복디자이너 이리자 씨 별세

한복 패션화와 국제화를 이끈 1세대 한복디자이너 이리자(본명 이은임·사진) 씨가 지난 21일 오후 10시 50분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5세. 1975년 국내 최초로 한복 작품 발표회를 개최하며 한복 디자이너라는 명칭을 사용한 고인은 국내에 한복 붐을 일으키고 외국에 한복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렸다. 1935년 충남 논산에서 태어나 충남대 영문과를 졸업한 그는 어려운 살림에 바느질을 시작해 작은 한복집을 열었다. 이후 전제적인 재능과 노력으로 현대 한복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장인이 됐다. 1966년 이리자 한복연구소 설립한 그는 1970년 한국인의 체형을 보완하는 '이리자식 한복패턴'을 개발해 보급했다. 당시 한복은 일자로 허리에 주름을 잡은 항아리형이었으나 그는 밑단이 퍼지는 A-라인으로 차마를 디자인했다. 해외 무대에서 한국 여성들의 킬링 킷을 보이게 만든 디자인이다. 그는 1974년부터 1977년까지 미스유니

버스대회 등 세계 미인대회에서 최우수 민속 의상상을 받았다.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등 세계 각국에서 100회가 넘는 한복 패션쇼를 개최했고, 프랑스 프레타 포르테에도 초청받았다. 고인은 색동, 금박, 자수 등 다양한 장식 기법을 활용해 한복의 패션을 이끌었다. 명성이 높아지면서 여러 명사의 한복을 제작했다. 프란체스카 여사부터 이순자, 이희호, 권양숙 여사까지 역대 대통령 부인들이 그가 만든 한복을 입었다. 처음 마네키에 한복을 입혀 디스플레이한 것도 그였다. 1996년에는 한복 전시관을 건립했으며, 사단법인 우리웃음회도 창립했다. 한복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2년 화관문화훈장과 신사임당상을 받았다. /연합뉴스

‘레이디’ 美 컨트리 가수 케니 로저스 별세

60여년 간 공연 무대와 브라운관을 오가며 발라드곡 ‘레이디(Lady)’ 등 히트곡을 남긴 미국의 컨트리 가수 케니 로저스(사진)가 20일(현지시간) 81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로저스 유족 측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로저스가 조지아주(州) 샌디 스프링스 자택에서 자연적 원인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허스키한 목소리와 덩수룩한 흰 수염으로 유명한 로저스는 ‘루실(Lucile)’, ‘더 갬블러(The Gambler)’, ‘카워드 오브 더 컨트리(Coward of the Country)’ 등 노래를 히트시키며 1970~80년대 슈퍼스타로 거듭났다. 이 시기 그는 그래미상을 3번 거머쥐었으며, 자신의 곡 ‘더 갬블러’에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동명의 TV 영화 시리즈에 주연으로 출연해 배우로 활동하기도 했다. 1938년 미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태어난

로저스는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28살이던 1966년 포크 그룹인 ‘뉴 크리스티 맨 스트렐스’에 합류하며 명성을 얻었다. 이 그룹 해체 후 솔로 활동을 시작한 로저스는 1977년 발표한 발라드곡 ‘루실’로 첫 그래미상을 받으며 스타로서의 입지를 본격적으로 다졌다. 그가 낸 최대 히트곡은 알앤비 전설 라이오넬 리치가 작곡한 ‘레이디’로 꼽힌다. 로저스가 1980년 발표한 이 곡은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에서 6주간 1위를 지켰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01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1 FAX 062-222-4938, 222-4918

하속

▲김한국(㈜금광공사 대표)·김순수 장남 형남군, 고정주(㈜나영산업 대표)·박학자씨 차녀 주리양=4월 11일(토) 오후 5시 30분 서구 농성동 라페스타 웨딩홀.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학대 신고·연계는 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

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지역장애인 성인·유아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일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수

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음안나=방과후 돌봄이 필요한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석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상담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061-285-1161. ▲화순 효사랑 노인복지센터 무료 방문 =중풍이나 치매 등의 병으로 고통받는 화순 거주 노인들의 무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061-373-8865.

오후 2시~4시 광주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4층 062-526-3370. ▲시니어를레너지지도사(자격면)모집=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지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010-5522-9700.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 모집=스마트폰 활용가능자 수시모집, 5-6명이면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블로그창업동호회 062-511-0030. ▲인생이모작 카운슬러 모집=인생2막 생애 재설계, 은퇴 신중론 상담에 관심 있거나 교육경험이 있는 48-58세 남아 모집, 실버체조, 치매예방 놀이, 노후생활 관련 강사 등, 한국50+ 희망발전소 010-2626-5018. ▲3D프린팅분야 교육과정 훈련생 모집=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3D프린팅관련 국가자격증 취득,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061-320-7024.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모집=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169번길 호남본부 062-515-7521.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